

로컬뉴스

군산시 공공수영장 확충 시급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이 내년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사회취약계층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이다. 시는 3개월간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공적지원 서비스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자의 경우 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과 긴급복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적지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명과 군산시 재가장기요양기관 36개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통장 회의 시 독거어르신 중증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발굴에 협조를 당부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세대 가구소득은 감소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기초수영교실 의무 실시·노인들 건강관리로 수영 각광 받으면서 북새통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영교실' 의무 실시와 노인들의 건강관리로 수영이 각광을 받으면서 군산지역 공공수영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정구 레인을 갖춘 수영장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수영장 이용객은 지난해 보수 기간을 제외한 8개월간 14만1828명, 새 단장을 마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은 총 13만9118명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월명수영장 한 달 회원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1000명 정도였지만 올해 재개장 이후 약 30% 급증한 월 1300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 중이며, 일일 회원은 지난해 월 3000명에서 올해 월 6000명(50%)으로 늘었다.

또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지난해 9만5669명이 이용했으나, 올해 10월까지 9만2111명이 입장하는 등 이용

객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시설은 수십 년 전 그대로이다.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 모두 25m, 6레인인 갖추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영 인구를 받기에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월명수영장은 낡은 시설을 재 단장하여 올해 문을 열었지만, 대야수영장은 13년 된 노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정구 레인을 갖춘 수영장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종합스포츠 센터를 신축하면 약 500여명의 예산이 필요해 군산시 단독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종합스포츠 센터 신축에는 약 48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와 도비·시비 240억원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이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지역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철담 건립을 수용한 군산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전 측이 부담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안은 현재 김관영 국회의원실 등 정치관에서 한전 측을 상대로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명체육관과 대야국민체육센터 등 2곳뿐인 공공 수영장에서 벗어나 군산 시민들과 노인세대들의 건강권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영교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영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수영장만으로는 이용객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정구 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할 실정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예산 1조 444억여원 확정

정례회 본회의 열여 최종 예산 확정·내년도 예산안 등 8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결산 추경을 통해 2016년 예산을 1조 444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최종 예산 확정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 186억 5000만원에 비해 258억 2000만원 증액된 1조 451억 7000만원이 계상됐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억 6500여만원이 삭감된 1조 444억여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김양원 부시장은 2016년 본예산 9348억 대비 5% 감소한 8881억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비롯해 2017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펼칠 계획이다.

또 예산안 1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서동완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국가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국외 비준동의

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협정 체결을 강행한 만큼 이는 국민의권을 묵살한 행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천 무효 및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자연재해와 전염 등 국가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군산은 육상 해상, 공상 모두가 열려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등을 통해 군산지역의 특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현장중심의 대책수립이 언제든 시행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정현을 익산시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통간담회

익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사회단체 연합체)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참여와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시농민회, 교육문화중심 '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스포1000생협, 희망연대 등 7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청 소년문화공간 확충, 익산시 신청사 건립문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친환경 급식 확대 등 다양한 지역 현



익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치·협력하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인 통합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 소나무재선충병 대항방제 업무협약

군산시가 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과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항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및 완전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항방제 구역 지정,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대항방제 대상지는 산림소유자들이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심한 화천면, 옥산면, 옥구읍 내초동 일원 102ha이다.

이 지역에는 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이 함께 참여해 모두베기를 대항 실시하게 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밀도가 높아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도급사업만으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어 모두베기 대항방제를 통해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방제 대행시에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모두베기 방제법'에 따라 활엽수 및 우량목은 최대한 군산으로 남겨

보유하고, 남겨진 소나무는 나무에방 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베기 피해목은 매각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섭 군산시 산림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공동대응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과 방제작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산림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LINC사업단 드론 교육 실시 조종지도자 2급 자격증 취득자 15명 배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LINC사업단은 교내 산학협력교육실 및 대운동장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지도자 과정을 실시하고, 15명의 드론 조종지도자 2급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다.

융합형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과정은 드론의 기본이론 조립 및 개발, 조종 및 비행실습으로 구성됐으며, 드론 관련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산업계 연계 교육으로 진행됐다.

"융합형 특성화 프로그램"은 대학교와 기업의 산학협력 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기계자동차공학부, 도시공학과, 스포츠과학부 등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3일 동안 드론 교육을 마친 수료생 중 자격증 시험에 20명이 응시해 15명이 최근 드론 조종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드론 교육을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향·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 작성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며, "이를 통해 차세대 미래기술인 드론 분야 인력양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선유도 해양문화 탐방

군산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학교 등 도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참여 4개 대학과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고군산 선유도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한문화융합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학생 지역문화체험을 통한 친한·유한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됐다.

군산대학교(15명), 우석대학교(17명), 원광대학교(13명), 전주대학교(18명), 전북대학교(16명) 등 5개 대학 유학생들과 관계자 등 80여명은 비응향→횡

경도→방축도→장지도→무너도→선유도 노선을 따라 고군산 일대를 탐방하며 전북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전국 10개 권역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각 대학이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탄소, 농생명, 문화산업을 연계한 농생명 한문화 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잔원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기반방향 수립을 위해 시행중인 익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잔원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달 30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종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에서 익산형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그동안 고민하고 발굴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는 사회적경제 조성과 시민의식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의 선형사례 조사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1차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보고회에서 "익산시 사회적경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향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에서 익산형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그동안 고민하고 발굴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종합평가 도내 1위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도내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정보·보안·외사 업무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정보업무는 국민안전에 위한 정책정보 수집, 불법 집회시위 방지, 4대 악결과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400여일 동안 계속된 군산충전탑 집단민원 현장에서 주민친화적 정보활동으로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점, 새만금산업단지내 공장신축 현장에서 노

동단체 장기집회 등에서 변수 없이 현장을 관리한 점 등 사회안정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안업무에서는 탐방민원 정착지원, 테러 활동, 친북사이트 차단 등 사이버 보안활동, 찾아가는 안보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6년 경찰청 베스트 외사경찰, 경찰청 미군범죄 최우수 관서 등에 선정되는 등 외사업무 전반에 걸쳐 두각을 나타냈다.

/군산=문정곤 기자